



이매옥 깨달음과 나눔 대표이사는... 1955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1979년부터 도선사에서 불교공부를 시작해 108배와 참선 수행을 이어왔다.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불법임을 깨닫고 2000년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반찬 배달을 시작했다. 이후 2002년 '깨달음과 나눔'을 설립 매주 일요일마다 어르신들에게 점심 공양을 올리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향마좌 수행을 시작해 전국에 각 처에 선원을 마련 수행법을 알려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안성에 아동복지 시설을 마련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마좌 수행은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었다. "결과부좌를 매일 3시간 하면 육체를 이겨 병에 걸리지 않고, 매일 6시간하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며, 주 1회 12~13시간을 하면 업장이 소멸되며, 월 1회 20시간 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게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결국 수행을 하면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갈 수 있어요. 또한 저절로 오신채를 금하게 되고 육식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결과부좌 수행을 통해 병도 극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좋은 수행과 부처님 법을 세상에 알려 나가기 시작했다. "스승님께서 처처법당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집 거실이나 어떤 공간만 있으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다보니 여수 마산 대구 광주 등에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고 현재 전국적으로 1천 여 명이 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또 열린선원과 조계사 극락전에서도 대중들에게 이 수행법을 강의하기도 했죠."

이렇게 그녀는 향마좌 선원이라는 이름을 통해 사람들에게 결과부좌 수행을 알려나가고 있다. "향마좌는 부처님께서 깨달았을 때의 자세예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알려주실지 한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러나 이 결과부좌는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그 자세를 통해 우리가 좀 더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녀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이 수행법을 행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능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선원에 오는 아이들이 2세부터 있어요. 참선처럼 계속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부좌 자세를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더니 아이들도 이 자세만 잡을 수 있으면 수행이 돼요. 그러면 혼자서 놀이도 하면서 수행에 적응을 해나가죠. 꾸준히 하다보면 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다보니 사춘기도 쉽게 넘어가게 돼요. 스스로 내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불교여성개발원 바자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향마좌선원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좌선하고 있는 이매옥 이사.

전법일기

음악법회서 꽃피는 찬불포교 원력

LMB 싱어즈와 음악법회

매달 셋 째주 저녁 7시 낙성대입구 LMB싱어즈의 작은 음악당에 들어서자 마자 건강한 청년들의 힘찬 목소리에 흥이 난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성악인들이라 목소리도 좋다.

LMB싱어즈의 황영선 대표의 별명은 '대표'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하면 그냥 밀어부치는 특성이 있어서다. 그런 특성이 있었기에 열악한 불교문화의 후원 속에서 14년이라는 시간을 꾸려올 수 있었다. 또한 그녀는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도 꼭 삼배를 한다. 하지 말라고 해도 굳이 한다. 아주 고집도 세다. 그러다 나에게 야단이라도 맞으면 "스님, 죄송해요. 제가 쓸개가 없어서 그래요"하며 빙글레 웃는다. 실제로 그녀는 과로로 인해 쓸개를 제거한 이력까지 가지고 있다.

불광사 어린이 법회 출신인 그녀는 찬불포교의 사명으로 팔팔 뭉쳐 있다. 그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에게 원력이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삼 느낀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중학교 음악교사의 자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낱이 발전하는 찬불가에 비해 열악한 찬불가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소명으로 전문성인 10명으로 구성된 혼성 4부 중창단인 LMB싱어즈를 결성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700회 이상의 공연을 했으며 14년동안 매달 군대를 방문하여 수백명의 젊은 장병들에게 찬불가 지도로 군포교에도 힘써 왔다. 가수들도 내기 어렵다는 음반도 4개나 출판했다. 특히 이번엔 나온 4집 음반은 완성도가 아주 높아 인기가 좋다. 첫 번째 음반은 보통 법회에서 많이 부르는 의식곡 중심으로 되어 있어 합창단이 없는 법당에서



그림·박구원

사용할 수 있고, 2집, 3집, 4집은 모두 앨범비까지 직접 작사, 작곡한 아름다운 노래들이다.

음반을 낼 때마다 황영선대표의 어께가 무거워진다.

"재정도 어려운데 꼭 음반을 내야하나?" 걱정 어린 말투로 물으면 머리를 긁적이며,

"스님, 그래도 5년에 한번은 새로운 찬불가가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불교음악 발전 못해요."

가슴이 아프다. 스님도 아닌 재가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전법을 위한 무게를 감당해야하다니... 너무도 몽글하고 안타까운 나의 마음을 직접 작사 한 노래가 4집에 수록된 <마음의 소리>이다.

오늘은 음악법회가 있는 날이다. 음악법회는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형식을 간소화하면서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신나고 감동적인 법회의

성격을 띄고 있다. 먼저 저녁예불과 반야심경을 성악식으로 하고 삼귀의, 청병가, 법문에 이어 우뻓싸합창단, LMB싱어즈가 한 달동안 열심히 연습한 곡들을 공연의 형태로 발표한다. 특징적인 것은 모두가 찬불가로서 신심을 키울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회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법문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에 법구경의 구절도 멜로디 화하여서 가슴속에 넣는다. 그래서 어린아이, 청소년, 어른들까지 모두 함께 할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인 동준, 동훈 형제는 엄마와 함께 5년 동안 거의 매달 빠지지 않고 법회에 참석한다. 꼬마였던 아이들이 어느덧 음악법회에서 자라 의젓한 청소년이 되었다. 한 달에 한번만나는 사이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하다.

이렇듯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고 가슴 몽글하게 해주는 LMB싱어즈 대표와 단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사를 보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법회에 함께하여 환희와 마음속 분다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불포교의 행진에 많은 후원자들과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후원은 작은 금액이라도 정규적으로 후원을 받을 때 마음에 힘이 솟는다. 그것은 돈의 크기보다 후원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더 큼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언젠가 찬불가로서 중생의 보성을 찾도록 돕겠다는 이들의 꿈이 꼭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아니, 어쩌면 이들의 꿈은 매달 음악법회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WWW.WDU.AC.KR

참여재를 키웁니다

실력이 참종은대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수님은 이론적인 토대 위에 경험의 지혜와 노하우를 더해 참인재를 키우는 참스승입니다

특성화교육의 참된 리더 - 원광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문적 지식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사회복지 전문가

요가명상학과
인도 정통요가의 철학과 기술을 잇는 요가교육의 메카

동양학과
술수문화를 체계화하고 현대에 응용·활용할 전문가

차(茶)문화 경영학과
21세기 한국 차문화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 리더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인학상담 1588-2854

▶모집기간: 2013년 12월 2일(월) ~ 2014년 1월 3일(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 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한국문화학부 -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실용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2014학년도 1학기 웰빙문화대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2013년 12월 30일(월) ~ 2014년 1월 13일(월) ▶모집학과: 자연건강학과

① 자세한 사항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홈페이지(ENTER.WDU.AC.KR)를 참조하세요

특성화교육의 참된 리더 - 원광디지털대학교